

Sport Industry

SI포커스

KSPPO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지표로 살펴보는 한국의 스포츠산업

신 성 연, 류 윤 지(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 I. 스포츠용품 제조업 및 프로·경주 스포츠 현황
- II. 스포츠 시설 및 이벤트
- III. 결 론: 요약 및 논의

요 약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는 대한민국 스포츠 분야별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스포츠행정 및 스포츠산업, 그리고 스포츠와 관련된 국민들의 인식과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국의 체육지표」를 발간하고 있다. SI포커스 67호에서는 「2019 한국의 체육지표¹⁾」에 수록된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한국의 스포츠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지속적인 스포츠산업 성장을 위한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의 작성에 활용된 지표는 크게 ‘스포츠용품 제조업 및 프로·경주 스포츠 현황’, 그리고 ‘스포츠 시설 및 이벤트와 관련된 현황’ 2가지의 범주로 구성되었다. 첫째, 스포츠용품 제조업 및 프로·경주 스포츠와 관련해서는; 1) 스포츠용품의 생산 및 수출입, 2) 프로스포츠, 3) 경주스포츠와 관련된 지표를 기반으로 내용이 작성되었다. 그리고 ‘스포츠용품 제조업’ 및 ‘수출입 현황’에 관한 내용은 지표의 현실 반영도 향상을 위해 각각 국가승인통계인 「스포츠산업실태조사」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발행하는 「스포츠 동향 아카이브」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둘째, 스포츠 시설 및 이벤트와 관련해서는; 1) 스포츠 시설, 2) 스포츠 이벤트에 관한 지표를 통해 스포츠산업 분야 유·무형의 인프라 및 이벤트 개최와 관련된 현황들을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된 지표에 대한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스포츠산업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 스포츠용품 생산업체의 수는 2017년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추이를 나타내는 반면 스포츠용품 매출규모는 점진적인 증가추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사업체별 매출액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스포츠용품의 수출입 현황의 경우, 스포츠용품의 수입 규모가 수출 규모와 비교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스포츠시설 및 이벤트 측면에서는 2019년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1인당 면적이 전국 평균 3.82m²으로 2018년 3.64m²와 비교해 5%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1인당 면적은 전남(9.98m²)이 가장 넓고 그 다음으로 강원(9.05m²), 전북(6.28m²), 제주(5.42m²), 충북(5.23m²)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내 스포츠대회는 2019년 총 920개가 개최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616개 대회와 비교해 49.4% 증가한 규모이다. 또한, 2019년 전국 하계·동계 체육대회 참가인원수는 28,844명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3.5% 증가하였다. 이를 포함한 다양한 지표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의 결론에는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제시하고 있다.

1) 「2019 한국의 체육지표(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020)」의 내용을 발췌·재인용·편집하여 작성되었음(표, 그림 등 포함).

I. 스포츠용품 제조업 및 프로·경주 스포츠 현황

1. 스포츠용품 제조업

1) 스포츠용품 제조업 현황

2019년 기준 스포츠용품 제조 사업체 수는 <표 1>에 제시된 것과 같이 총 2,827개로 스포츠 의류 제조업(915개)이 가장 많았으며, 운동 및 경기용 장비 제조업(402개), 낚시 및 수렵용 장비 제조업(325개)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스포츠용품 제조업 매출액은 총 7조 5,270억 원으로, 스포츠 의류 제조업(4조 310억 원)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스포츠 신발 제조업(7,380억 원), 운동 및 경기용 장비 제조업(6,91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용품 제조업 종사자 수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총 286명으로 스포츠 의류 제조업(113명)이 가장 많았으며, 운동 및 경기용 장비 제조업(30명), 스포츠 신발 제조업(29명) 순으로 확인되었다.

<표 1> 스포츠용품 업체 수, 종사자 수 및 매출액

(단위: 개/ 십억 원/ 백 명)

구 분	사업체 수			매출액			종사자 수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합계	3,539	2,799	2,827	7,397	7,647	7,527	338	298	286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운동 및 경기용 장비 제조업	403	361	402	488	678	691	26	29	30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268	279	288	386	454	482	25	26	25
	자전거 제조업	52	48	46	92	168	151	4	9	9
	낚시 및 수렵용 장비 제조업	330	335	325	370	423	413	30	27	26
	놀이터용 기구 제조업	71	89	88	129	132	142	7	7	8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	46	59	-	52	75	-	2	4
	기타 운동 및 경기용품 제조업	55	30	16	203	216	194	5	6	5
스포츠 의류 및 관련 섬유제품 제조업	스포츠 의류 제조업	1,651	876	915	4,443	4,140	4,031	171	122	113
	캠핑용 직물제품 제조업	173	181	174	109	114	108	10	9	9
	스포츠관련 직물제품 제조업	58	59	62	72	82	84	5	6	6
	스포츠관련 의류 부분품 제조업	61	58	56	41	43	41	3	2	2
스포츠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스포츠 가방 제조업	154	155	150	117	164	161	8	7	7
	스포츠 신발 제조업	136	145	126	707	772	738	31	32	29
	스포츠관련 신발부분품 제조업	127	137	120	240	209	216	13	14	13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실태조사」 연도별 결과보고서 자료 편집

2) 스포츠용품 수출 및 수입 현황

스포츠용품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표 2>에 제시된 것과 같이 2020년 전체 수출액은 6,175억 원으로 2019년 6,068억 원과 비교해 1.8% 증가하였다. 스포츠용품의 유형을 구분하면, 스포츠의류(57.5%)는 운동용품(1.5%)과 비교해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고, 스포츠신발(-9.2%)은 수출액이 감소하였다.

<표 2> 스포츠용품 수출액

(단위 : 억 원, 1달러=1,150원 적용)

연도	2019					2020					전년 대비 증감률 (%)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전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전체
전체		1,340	1,449	1,512	1,767	6,068	1,420	1,399	1,487	1,869	6,175	1.8%
운동용품		625	723	634	739	2,721	647	553	669	893	2,762	1.5%
스포츠신발		594	625	765	800	2,784	559	689	630	649	2,527	-9.2%
스포츠의류		121	101	113	227	562	214	157	188	326	885	57.5%

출처: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스포츠 동향 아카이브(원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자료 편집

스포츠용품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표 3>에 제시된 것과 같이 2020년 전체 수입액은 5조 4,677억 원으로 2019년 5조 5,072억 원과 비교해 0.7% 감소하였다. 스포츠용품의 유형을 구분하면, 스포츠의류(-8.5%)와 스포츠신발(-4.9%)은 수입액이 감소하였고 운동용품(1.5%)은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표 3> 스포츠용품 수입액

(단위 : 억 원, 1달러=1,150원 적용)

연도	2019					2020					전년 대비 증감률 (%)	
	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전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전체
전체		15,052	13,517	13,576	12,927	55,072	14,679	13,141	13,447	13,410	54,677	-0.7%
운동용품		3,184	3,767	3,114	2,947	13,012	3,204	3,877	4,048	3,815	14,944	14.8%
스포츠신발		9,149	8,478	8,690	8,464	34,781	9,023	8,164	7,798	8,086	33,071	-4.9%
스포츠의류		2,720	1,272	1,772	1,517	7,281	2,453	1,100	1,601	1,510	6,664	-8.5%

출처: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스포츠 동향 아카이브(원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자료 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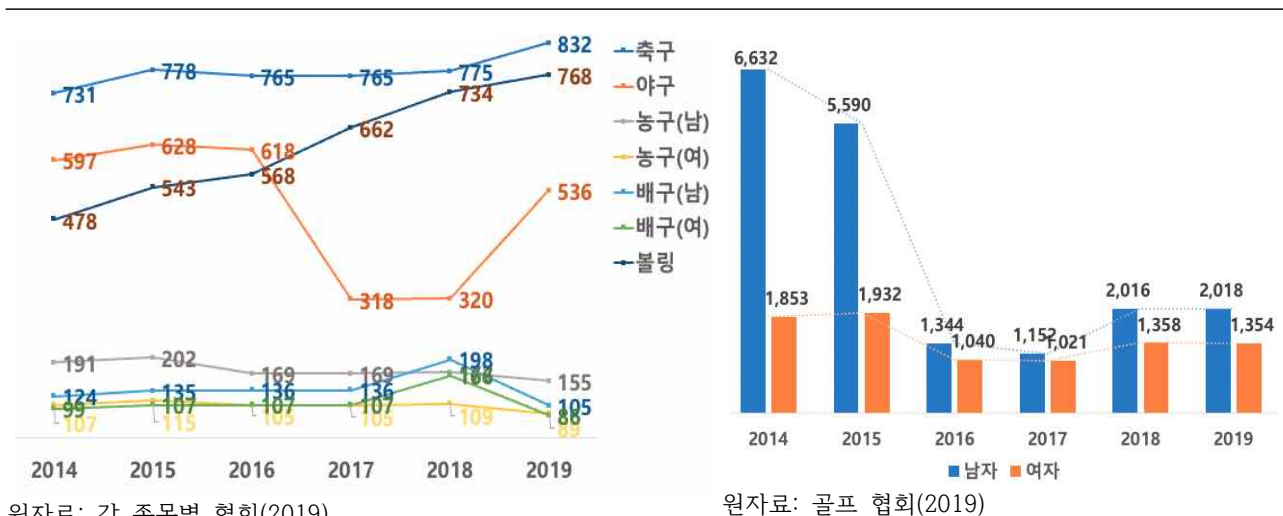
2. 프로스포츠

1) 프로스포츠 선수 수

2019년 기준 프로스포츠 리그를 운영 중인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볼링 종목에 등록된 선수의 수는 총 2,571명으로 확인되었다. 종목별 선수의 수는 축구(832명)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볼링(768명), 야구(536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4년 이후 프로스포츠 선수의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1>에 제시된 것과 같이, 전반적으로 축구와 볼링 종목에서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농구와 배구 종목에서는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나내고 있다.

(단위 : 명)



<그림 1> 프로스포츠 선수 수

<그림 2> 프로스포츠 선수 수(골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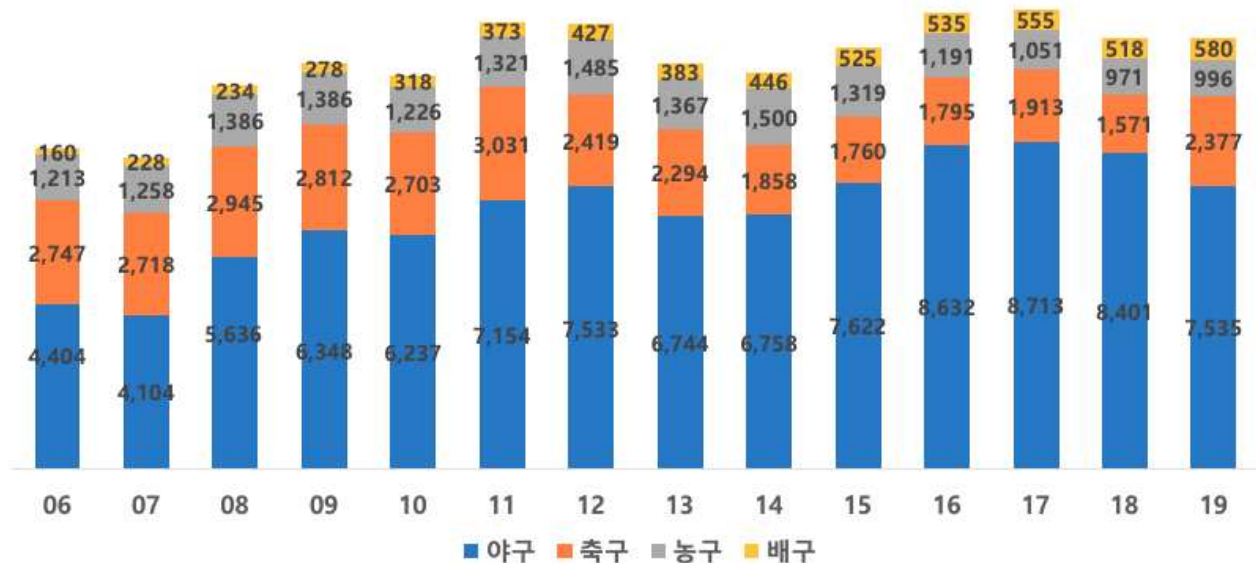
2019년 기준 협회에 등록된 골프 선수의 수는 총 3,372명으로, 앞서 제시된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볼링을 비롯한 우리나라 프로스포츠 가운데 등록된 선수의 수가 가장 많은 종목임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면 남자 선수가 2,018명, 여자 선수가 1,35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 선수의 수에 대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개년도 자료는 <그림 2>과 같은데, 전반적으로 남자선수가 여자선수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격차는 2016년부터 점차 좁혀졌으나 2018년부터 다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 프로스포츠 관람객

2019년 한 해 동안 프로스포츠 관람을 위해 경기장을 방문한 관람객은 총 1,149만 명으로 확인되었다. 프로스포츠 관람객을 종목별로 살펴보면 <그림 3>에 제시된 것과 같이, 야구(754만 명)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축구(237만 명), 농구(99만 명), 배구(58만 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프로스포츠 전체 관람객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도에 가장 많은 입장 인원(1,223만 명)을 기록하였으며 2006년부터 2017년까지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8년부터는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단위 : 천명)



원자료: 한국야구위원회 2019, 한국프로축구연맹 2019, 한국프로농구연맹 2019, 한국배구연맹 2019

<그림 3> 프로스포츠 입장인원 수

3. 경주스포츠

1) 경륜산업 매출액 및 입장객

경륜산업의 매출액 및 입장객 현황은 <그림 4>에 제시된 것과 같다. 2018년 연간 매출액은 2조 515억 원이며 일평균 매출액은 139억 원으로 나타났다. 2005년부터 2018년도까지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 가장 낮은 연간 매출 1조 5,895억 원과 일평균 매출 117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2011년 가장 높은 연간 매출 2조 5,145억 원과 일평균 매출 184억 원을 기록하였다. 이후 2018년도까지 경륜산업 매출액은 점점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8년 연간 입장객은 497만 명이며 일평균 입장객은 33,636명으로 나타났다. 2005년부터 2018년까지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 연간입장객 565만 명에서 2007년 905만 명으로 60%가량 증가하였으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연간 입장객은 916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이후 2012년부터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연간 입장객은 531명으로 확인되었다.

(단위: 백만 원, 명)



원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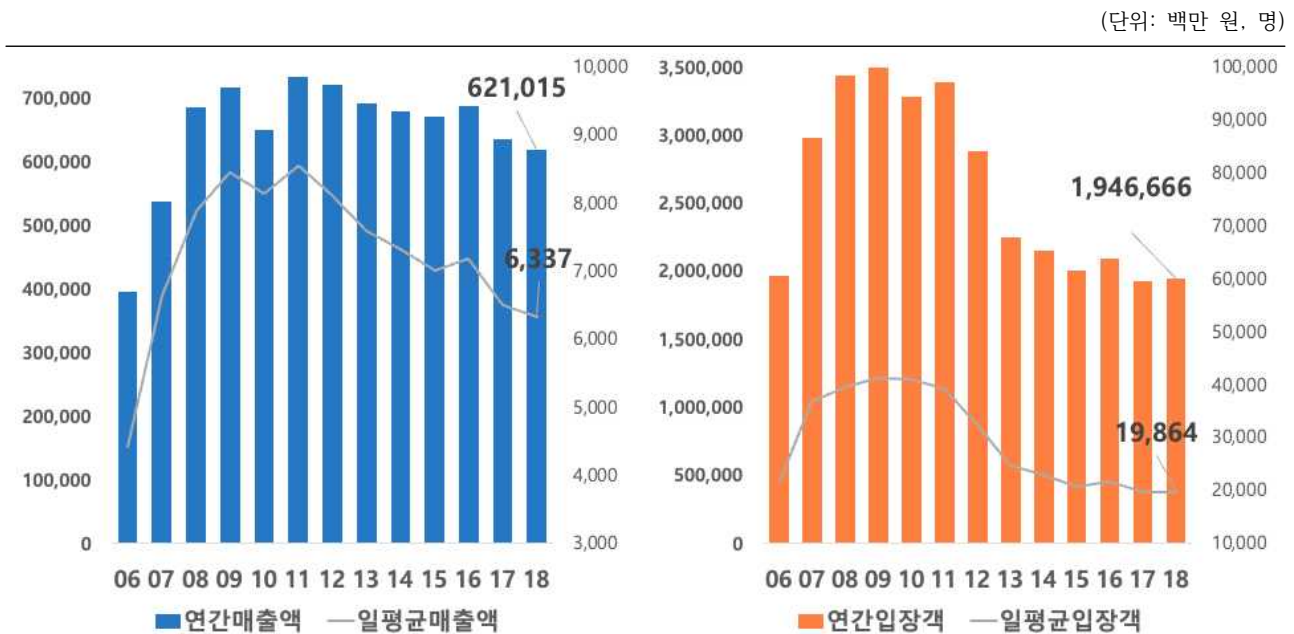
<그림 4> 경륜산업 매출액 및 입장객 수

2) 경정산업 매출액 및 입장객

경정산업의 매출액 및 입장객 현황은 <그림 5>과 같다. 2018년 연간 매출액은 6,210억 원이며 일평균 매출액은 63억 원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2018년도까지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 가장 낮은 연간 매출 3,972억 원과 일평균 매출 44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2011년 가장 높은 연간 매출 7,348억 원과 일평균 매출 85억 원을 기록하였다. 이후 2018년도까지 경정산업 매출액은 점점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8년 연간 입장객은 195만 명이며 일평균 입장객은 19,864명으로 나타났다. 2006년부터 2018년까지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 연간입장객 197만 명에서 2007년 298만 명

으로 51% 가량 증가하였으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연간 입장객은 332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이후 2012년부터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연간 입장객은 206만 명으로 확인되었다.



원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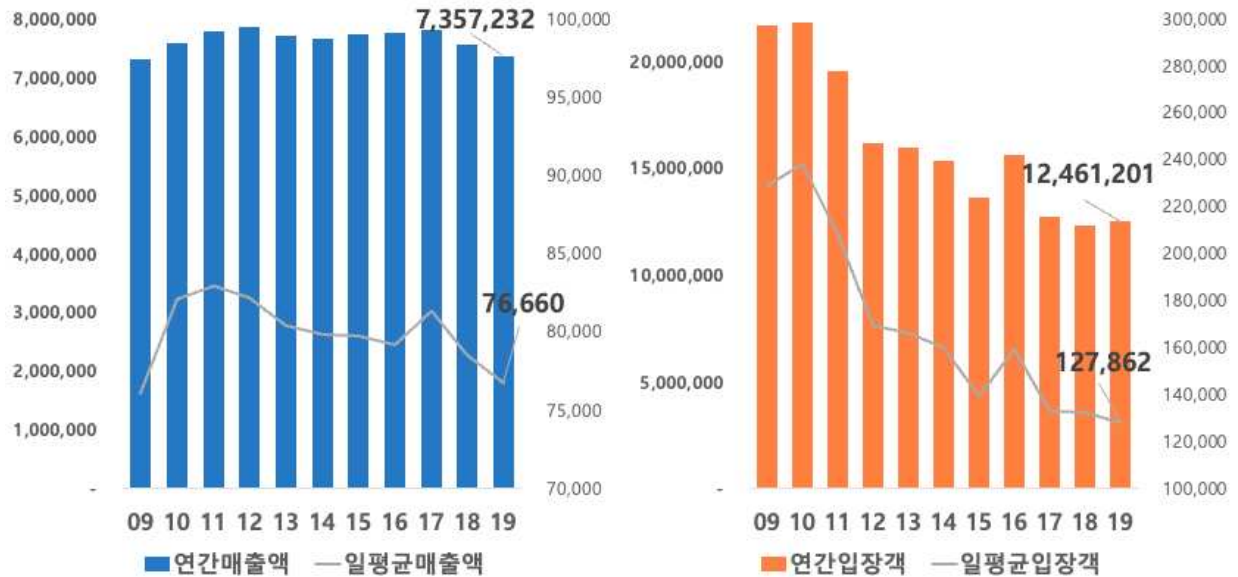
<그림 5> 경정산업 매출액 및 입장객 수

3) 경마산업 매출액 및 입장객

경마산업의 매출액 및 입장객 현황은 다음 <그림 6>과 같다. 2019년 연간 매출액은 7조 3,572억 원이며 일평균 매출액은 767억 원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2019년도까지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 가장 낮은 연간 매출 7조 2,865억 원과 일평균 매출 760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2012년 가장 높은 연간 매출 7조 8,397억 원과 일평균 매출 822억 원을 기록하였다. 이후 2019년도까지 경마산업 매출액은 점점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9년 연간 입장객은 1,246만 명이며 일평균 입장객은 127,862명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 연간입장객 2,168만 명에서 2010년 2,181만 명으로 0.63% 가량 증가하였으며, 2011년부터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연간 입장객은 1,484만 명으로 확인되었다.

(단위: 백만 원, 명)



원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 2018

<그림 6> 경마산업 매출액 및 입장객 수

II. 스포츠 시설 및 이벤트

1. 스포츠 시설

1) 시도별 1인당 체육시설 면적

국내 시도별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은 다음 <표 4>와 같다. 2019년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1인당 면적은 전국 평균 3.82m²으로 2018년 3.64m²와 비교해 5%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1인당 면적은 전남(9.98m²)이 가장 넓고 그 다음으로 강원(9.05m²), 전북(6.28m²), 제주(5.42m²), 충북(5.23m²)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등록체육시설에 대한 1인당 면적은 전국 평균 10.11m²으로 2018년 9.55m²와 비교해 6%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1인당 면적은 강원(50.63m²)이 가장 넓고 그 다음으로 제주(50.07m²), 충북(23.95m²), 전남(19.11m²), 경북(17.35m²)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신고체육시설에 대한 1인당 면적은 전국 평균 0.59m²으로 2018년 0.63m²와 비교해 6% 감소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1인당 면적은 제주(3.89m²)가 가장 넓고 그 다음으로 전북(1.4m²), 경북(0.98m²), 강원(0.91m²), 전남(0.86m²)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시도별 1인당 체육시설의 면적

(단위 : 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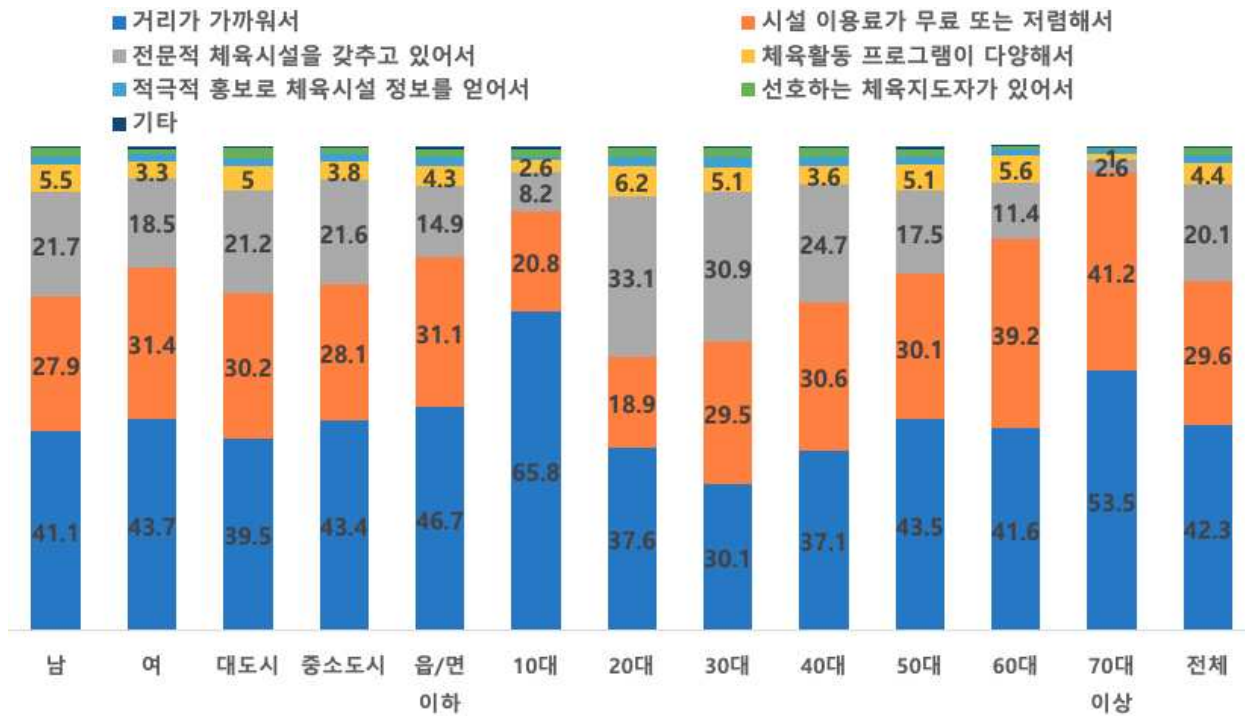
구 분	공공체육시설 1인당 면적					민간체육시설 1인당 면적									
						등록체육시설					신고체육시설				
	2017	2018	2019	차이	전년도 대비 증감률 (%)	2017	2018	2019	차이	전년도 대비 증감률 (%)	2017	2018	2019	차이	전년도 대비 증감률 (%)
전국	3.43	3.64	3.82	0.18	4.94	9.66	9.55	10.11	0.56	5.86	0.64	0.63	0.59	-0.04	-6.35
서울	1.36	1.53	1.56	0.03	1.96	.	.	0.1	.	.	0.24	0.3	0.3	0	0.00
부산	1.5	1.55	1.57	0.02	1.29	2.37	2.56	2.56	0	0.00	0.37	0.37	0.38	0.01	2.70
대구	1.59	1.73	1.9	0.17	9.83	0.38	0.39	0.38	-0.01	-2.56	0.43	0.37	0.45	0.08	21.62
인천	3.01	3.28	3.31	0.03	0.91	3.27	3.43	3.44	0.01	0.29	0.38	0.44	0.38	-0.06	-13.64
광주	1.5	1.23	1.36	0.13	10.57	1.43	1.44	1.43	-0.01	-0.69	0.36	0.4	0.38	-0.02	-5.00
대전	0.15	1.51	1.55	0.04	2.65	1.15	1.18	1.17	-0.01	-0.85	0.45	0.41	0.43	0.02	4.88
울산	2.49	2.67	2.7	0.03	1.12	3.02	3.4	3.4	0	0.00	0.57	0.4	0.52	0.12	30.00
세종	1.55	1.55	1.78	0.23	14.84	8.97	7.37	11.2	3.83	51.97	0.32	0.25	0.26	0.01	4.00
경기	3.95	4.27	4.62	0.35	8.20	12.6	12.25	12.6	0.35	2.86	0.71	0.61	0.52	-0.09	-14.75
강원	8.63	8.99	9.05	0.06	0.67	49.27	49.54	50.63	1.09	2.20	1.08	0.99	0.91	-0.08	-8.08
충북	5.16	5.11	5.23	0.12	2.35	22.31	22.23	23.95	1.72	7.74	0.86	1.26	0.57	-0.69	-54.76
충남	3.72	3.95	4.04	0.09	2.28	8.61	5.26	8.86	3.6	68.44	0.75	0.67	0.66	-0.01	-1.49
전북	6.02	6.28	6.36	0.08	1.27	13.3	13.37	17.04	3.67	27.45	0.92	1.61	1.4	-0.21	-13.04
전남	8.88	9.47	9.98	0.51	5.29	18.5	18.9	19.11	0.21	1.11	0.87	0.98	0.86	-0.12	-12.24
경북	3.87	4.17	4.36	0.19	4.56	16.4	16.58	17.35	0.77	4.64	1.17	1.13	0.98	-0.15	-13.27
경남	4.9	4.93	5.2	0.27	5.48	12.2	12.6	12.89	0.29	2.30	0.62	0.58	0.72	0.14	24.14
제주	4.8	4.87	5.42	0.55	11.29	51.15	51.55	50.07	-1.48	-2.87	4.8	3	3.89	0.89	29.67

원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공공체육시설현황」 2020, 「전국 등록·신고 체육시설업 현황」 2020,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2019년 12월

2) 스포츠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일반국민들의 체육시설이용에 관한 조사 결과, 체육시설을 자주 이용하는 이유는 다음 <그림 7>과 같다. 성별에 따르면 남성(41.1%)과 여성(43.7%) 모두 거리가 가까워서 체육시설을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도시규모에 따른 체육시설을 자주 이용하는 이유도 ‘대도시(39.5%)’, ‘중소도시(43.4%)’, ‘읍/면 이하(46.7%)’ 모두 ‘거리가 가까워서’인 걸로 확인되었다.

연령대별 체육시설을 자주 이용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전 연령대가 ‘거리가 가까워서’라는 이유를 들었으며 구체적으로 보면 ‘10대(65.8%)’, ‘70대 이상(53.5%)’, ‘50대(43.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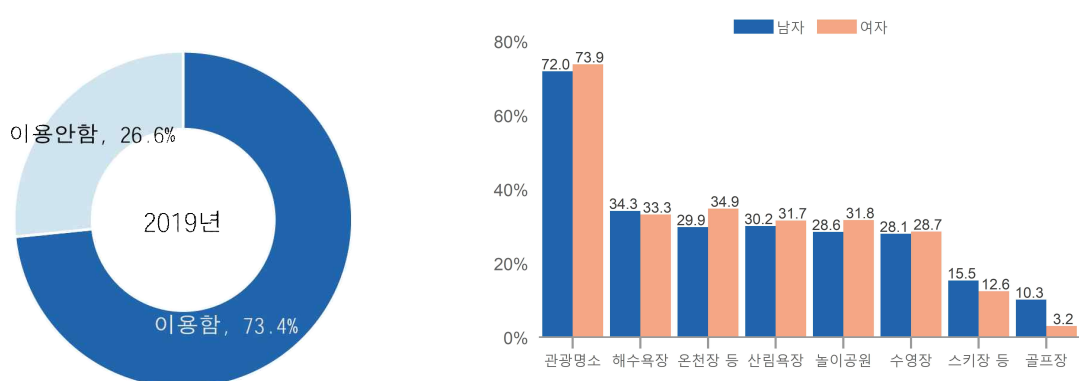


원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조사」 2019

<그림 7> 체육시설을 자주 이용하는 이유

3) 레저 시설별 이용 현황

레저시설의 유형에 따른 이용률은 다음 <그림 8>와 같다. 지난 1년 동안 국민 10명 중 7명(73.4%)은 관광명소, 해수욕장, 온천장 등의 레저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레



원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생활체육조사」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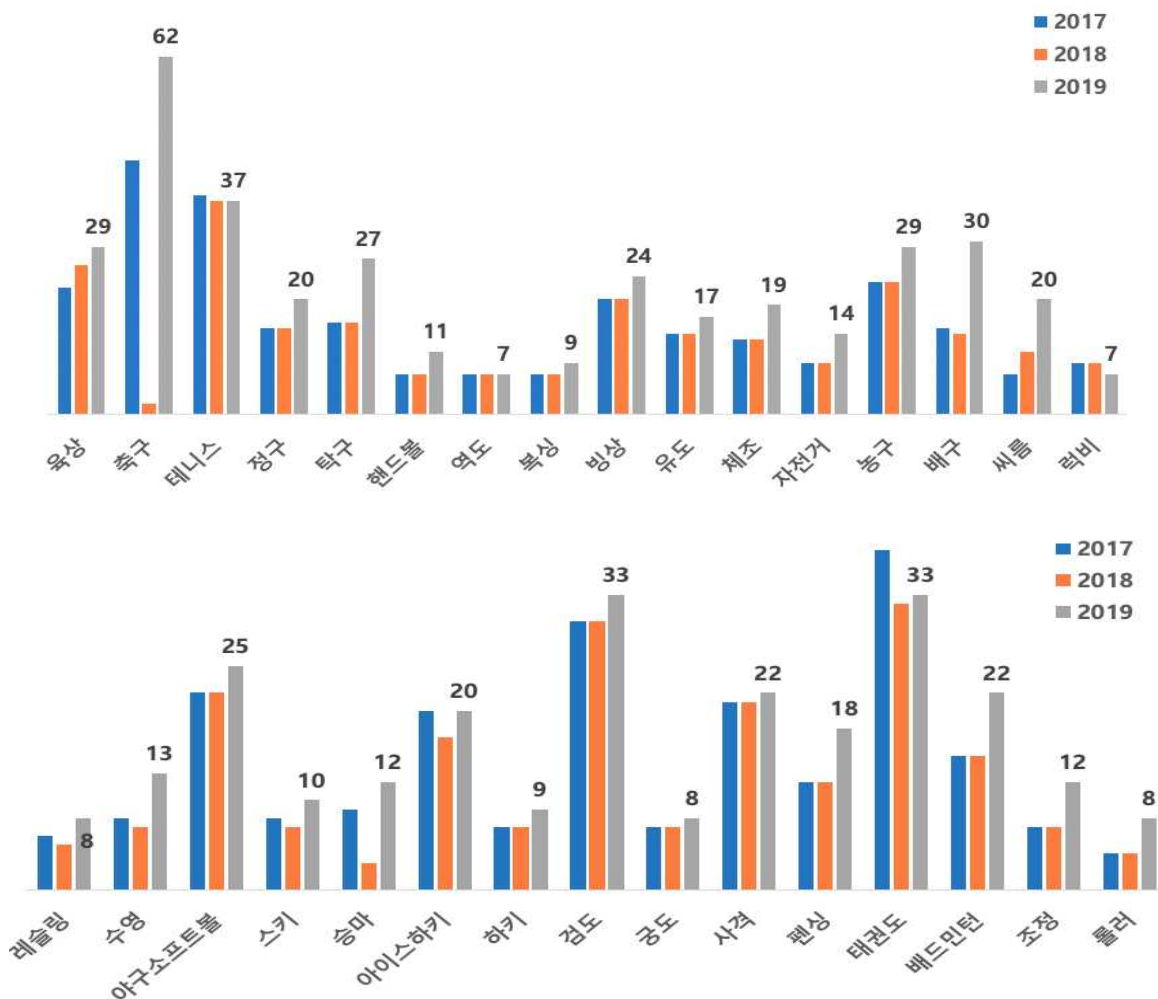
<그림 8> 레저시설별 이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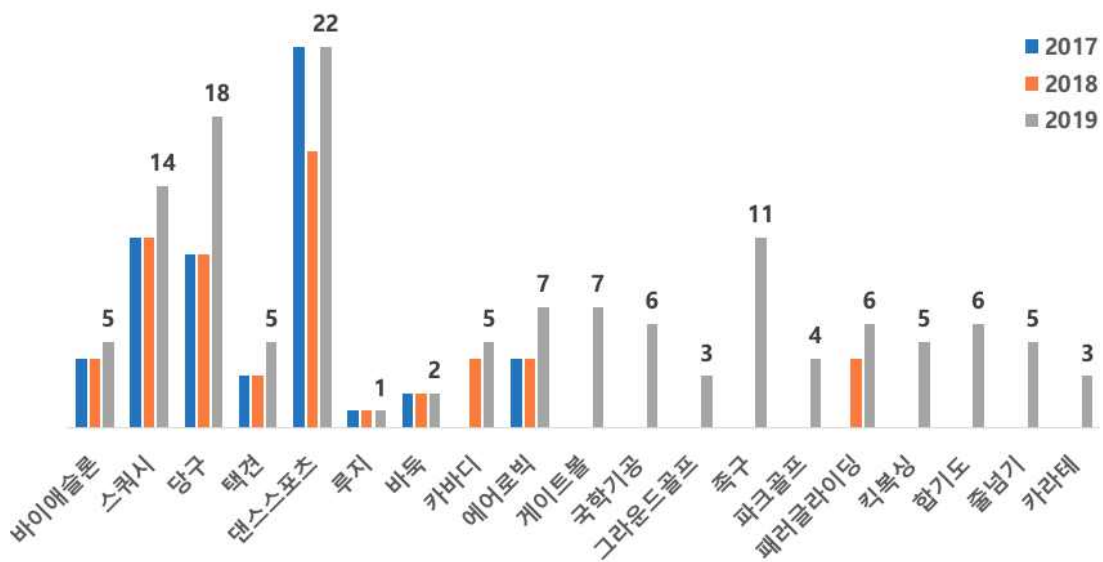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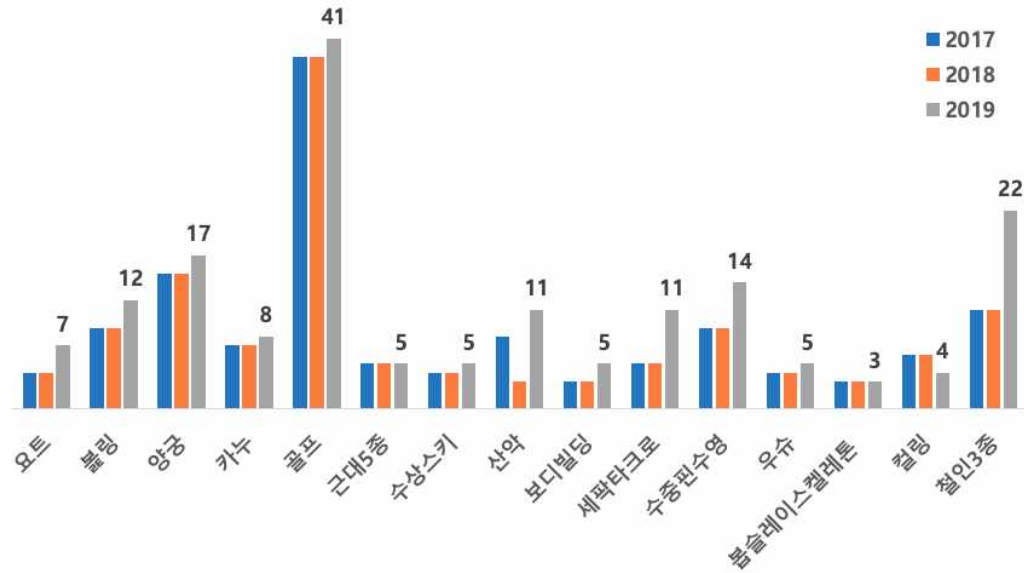
저시설 이용자의 비중은 관광명소(72.9%)가 가장 높고, 해수욕장(33.8%), 온천장 및 스파(32.5%)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레저시설을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대는 놀이공원 이용률이, 20대 이상은 관광명소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0~50대 10명 중 1명은 골프장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스포츠 이벤트

1) 국내 경기·대회 개최 수

스포츠이벤트 부문의 국내 스포츠대회는 2019년 총 920개의 대회가 개최되었고(그림 9 참고), 이는 전년도의 616개 대회와 비교해 49.4% 증가한 규모이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축구(62회)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골프(41회), 테니스(37회), 태권도(33회) 순으로 많이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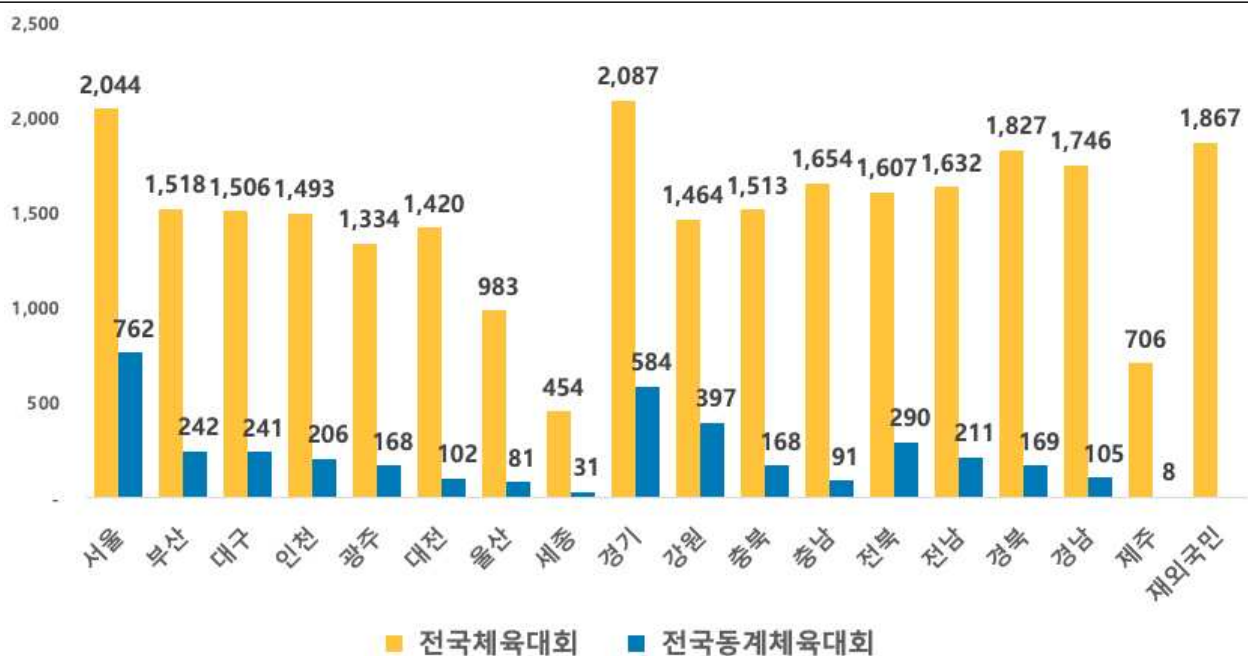


원자료: 대한체육회 2019

<그림 9> 국내경기 개최 수 (단위 : 회)

2) 전국 체육대회 참가인원

2019년 전국 하계 및 동계 체육대회 참가인 원수는 <그림 10>에 제시된 것과 같이 28,844명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3.5%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2,806명)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경기(2,671명), 경북(1,996명), 전북(1,897명) 순으로 나타났다.



원자료: 대한체육회 2019

<그림 10> 전국체육대회 참가 인원수 (단위 : 명)

Ⅲ. 결 론: 요약 및 논의

본 보고서에서는 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2019 한국의 체육지표」에 제시된 지표들 중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었다. 보고서는 크게 ‘스포츠산업 생산 및 소비’와 ‘스포츠시설 및 이벤트’ 분야로 구성되었다. 주요 지표들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스포츠용품 제조업

스포츠용품 제조업 및 프로·경주 스포츠와 관련한 주요 지표들에 대한 분석결과, 첫째, 스포츠용품 생산업체의 수는 2017년 이후 2019년 까지 점진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는

반면 매출액 규모는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업체별 생산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보고서가 활용한 ‘사업체 수’, ‘매출액’과 같은 지표로 분석한 업체별 생산성은 자본투입이나 노동투입 등과 같은 생산요소와 산출량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가시적인 지표상으로는 스포츠용품을 생산하는 사업체 단위당 생산능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둘째,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하여 스포츠용품의 수입과 수출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9년과 2020년 모두 스포츠용품의 수출액 보다는 수입액의 규모가 현저하게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수출입 지표를 스포츠용품의 총수출·입으로 가정하여 무역수지를 계산하면 2019년의 경우에는 4조 4억 원, 2020년에는 4조 8,502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9년 기준 무역수지 388.9억 달러 흑자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스포츠용품은 수입 비중이 높다고 판단된다. 스포츠용품 제조업의 무역수지 균형을 위해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2. 프로스포츠

첫째, 프로스포츠 종목별 등록 선수의 수 증감을 살펴보면 야구와 배구(남, 여)의 경우 특정 연도별로 편차가 나타났지만 축구와 골프를 비롯한 주요 종목에서는 전반적으로 2014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선수들의 연봉과 같은 다른 요인들을 제외하고 보면, 신생 구단(예, SSG 랜더스 등)의 창단 등과 같이 스포츠경기라는 서비스의 핵심제품(Core service)인 경기를 생산하는 투입요소가 증가하고 있어, 서비스 제공자인 종목별 프로스포츠 리그와 구단에서 제공 가능한 서비스 역시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프로리그에 소속된 구단의 수 증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 등록 선수의 증가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주요 프로스포츠인 야구, 축구, 농구, 배구를 직접 관람하는 관중의 수는 2018년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감소 추세는 온라인과 모바일을 비롯한 새로운 플랫폼을 통한 프로스포츠 관람 환경이 조성되고 특히, 5G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IT) 및 증계기술(예, AR활용, 호크아이 도입 등)의 발전이 미치는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프로스포츠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인 직접 관람객을 유지 또는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경기장을 방문했을 때 관람객이 지각하는 관람 품질이나 소비자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3. 경주스포츠

2019년을 기준으로 주요 경주스포츠인 경륜, 경정, 경마 종목의 연간 매출액은 10조 297억 원에 달한다. 2019년 스포츠산업 전체 연간 매출액이 80조 6,840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경륜, 경정, 경마 3개 종목의 비중은 전체 스포츠산업 매출액의 12.4%를 차지한다. 여기에 스포츠토도와 같은 유사한 형태의 업종을 더하면 스포츠베팅업의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제시된 경주스포츠 매출액과 입장객 현황(그림 5, 6, 7 참고)을 살펴보면 경주스포츠의 매출액과 입장객 수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9년 국내 불법 스포츠베팅 매출 규모가 20조 5,000억 원²⁾인 것을 고려하면 스포츠베팅에 대한 수요가 불법적 시장으로 이동한다는 추론을 할 수 있다. 또한, 합법 투표권인 스포츠토도의 2019년 매출이 5조 1,000억 원이라는 점 역시 합법적인 시장 보다는 불법적인 형태의 스포츠베팅에 대한 소비 규모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스포츠베팅을 통한 수익 창출과 배분이 스포츠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 넓은 만큼 음지의 수요를 양지로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절실하다.

4. 스포츠 시설 및 이벤트

첫째, 2019년 기준 국민 1인당 공공체육시설의 면적은 3.82m²으로 2018년 3.64m²와 비교해 5% 증가하였다. 그리고 등록체육시설에 대한 1인당 면적은 전국 평균 10.11m²으로 2018년 9.55m²와 비교해 6% 증가하였으며, 신고체육시설에 대한 1인당 면적은 전국 평균 0.59m²으로 2018년 0.63m²와 비교해 6% 감소하였다. 이 같은 지표를 통해 2017년 이후 공공체육시설과 민간체육시설(등록체육시설)의 1인당 면적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증가 추세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물리적으로 활용가능한 자원의 증가로 인해 스포츠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지표는 체육시설 전체에 대한 면적이므로 체육시설의 종목이나 특성(예, 실내 및 실외 등)에 따른 정보를 확인하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스포츠 시설의 활용과 관련된 스포츠산업 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형태의 지표 설정과 자료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일반국민들의 체육시설이용에 관한 조사 결과, 물리적인 거리가 스포츠시설을 이용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용자의 거주도시 크기, 연령대와 같은 특성들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을 때 도시규모나 연령대에 관계없이 모두 스포츠시설과의 거리

2) 한국법제형사정책연구원 발표 자료(2021. 6. 28)

가 중요한 요인으로 지각한다는 점에서 향후 스포츠시설의 입지와 관련해 물리적 거리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스포츠 이벤트 및 경기 개최와 관련하여 2019년 총 920개의 스포츠 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이는 전년의 616개 대회와 비교해 49.4% 증가한 규모이다. 스포츠 대회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선수단 및 타 지역 방문객들이 개최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출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스포츠 종목에 따른 개최 수의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스포츠 종목간의 균형적인 발전과 대회 개최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개최 대회의 수가 적은 종목들의 대회 개최 수를 늘리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SI (Sport Industry) 포커스

발간목적:

「SI (Sports Industry) 포커스」는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수행하는 연구 및 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심층·추가 분석을 바탕으로 스포츠산업 이해관계자의 합리적 경영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발행처: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스포츠산업연구실

김상훈(스포츠산업연구실, 실장 / 책임연구위원)

황종학(스포츠산업연구실, 수석연구위원)

유의동(스포츠산업연구실, 수석연구위원)

정지명(스포츠산업연구실, 책임연구위원)

김민수(스포츠산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고경진(스포츠산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신성연(스포츠산업연구실, 연구위원)

박선영(스포츠산업연구실, 연구위원)

류윤지(스포츠산업연구실, 초빙연구원)